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한 해 마무리 하세요

- 양림동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31일까지 목공 체험·캐롤송·버스킹
- 16일 마지막 광주프린지페스티벌 9개월 결산 토론회·광주판테온 제막
- 16·23일 대인예술시장 별장 야시장 재즈 공연·동화 구연·인형극 선보여



지난해 12월에 열린 대인야시장 별장의 모습.

연말을 맞아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추운 날씨 탓에 마음까지 얼어붙을지 모르지만, 잠시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 분위기를 전환해도 좋을 것 같다.

한해의 끝자락인 연말, 양림동과 5·18 민주광장, 대인시장 등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먼저, 15일부터 근대역사문화마을인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오는 15일 트리점등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주부대인 평민마을 일대의 골목길에는 대형 트리를 비롯해 주변 가로수를 활용해 트리 20여 개가 만들어져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인 16일, 23일,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억의 먹을거리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장소와 고구마 가래떡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체험장이 생긴다. 또, 팽귤이나 사자 등 동물모양을 새겨 만든 목판 카드에 희망사항을 적는 소망트리 체험과 커피 점

토, 오븐 클래스, 목공예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또 24일과 25일 양일간에는 양림오거리 앞 무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버스킹 공연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는 광주지역에서 활동중인 17개팀이 출연한다. 문의 062-607-4502.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5·18 민주광장을 다양한 공연으로 가득 채운 '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6일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주 토요일은 '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와 함께 금남지하상가 벽면에 광주정신을 담은 시각조형물(Graphic Wall) '광주판테온(가칭)' 제작행사 등 2가지 특별행사가 준비돼 있다.

'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는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세미나실 7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1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현 위치와 발전방향', 2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지역문화계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고찰' 등으로 진행된다.

시각조형물 '광주판테온(가칭)' 제작행사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진행된다. 금남지하상가의 원형 기둥(둘레 80m×높이 176cm)에 시각조형물(Graphic Wall) '광주판테온(가칭)'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다.

'광주판테온(가칭)' 작품은 서로 맞닿고 있는 손과 빛의 이미지를 결합해 광주 역사를 다룬 다양한 공원으로 가득 채운 '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6일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제작행사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식전행사로 행위예술가 문유미 씨가 '(a)theist'를 주제로 생과 사를 초사위로 보여주고, 히어로맨스쿨(김금란)은 '일을 위한 몸짓'을 주제로 광주정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제작식이 진행되고, 제작공연으로 모자이크엔터테인먼트의 '빛의 군상 퍼포먼스'와 이정훈 씨의 '푸른요정'을 주제로 한 세일호 희생자를 기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은 이 달 16일과 23일 두 차례 야시장을 마지막으로 잠시 휴장에 들어간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하루키 소설속 클래식을 만나다 윤남어린이도서관 18일 북 콘서트

'하루키 소설 속 음악과의 만남.' 윤남어린이도서관은 18일 오후 7시 북 콘서트 '하루키의 클래식을 만나다'를 진행한다. 개관 9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조현영씨가 하루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을 설명하고 연주도 들려준다. 하루키의 대표적인 '상실의 시대'에 등

장하는 바흐의 '인벤션 BWV 772', 드뷔시의 '달빛',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와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벤션 BWV 772', '달빛', '평균율 1권 1번', 그리그의 '페르귤트 모음곡' 중 '아침'(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은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윤남도서관은 지난 11월에는 2회에 걸쳐 키즈 클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현영(Art&Soul 예술강의기획 대표) 씨는 독일 쾰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 등 다양한 클래식 강좌를 진행중이다. 저서로는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가 있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조현영



무라카미 하루키

광산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lib.gwangsan.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문의 062-960-8301.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무예술단' 행복콘서트



지난해 현대병원서 열린 행복콘서트.

오늘 광주현대병원

22일 장성상무대 공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콘서트를 개최 중인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무예술단'이 15일과 22일 각각 광주현대병원, 장성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콘서트를 연다.

'문화나무예술단'은 클래식·국악·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2011년에 결성된 후 현재 227개 단체 1882명이 재능나눔문화 확산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 이번 연말연시 행복콘서트는 문화활동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과 병원 환우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오후 3시부터 광주 현대병원 로

비에서 진행되는 콘서트는 현대병원 환우를 대상으로 '하모니테라피(대표자 김재너)'의 오카리나 합주, 성악,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22일(오후 2시)에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장성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에서 '문화나무악회(대표자 정갑택)'의 소프라노 독창, 바이올린 합주 등 클래식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한다.

한편 문화나무예술단은 지난 14일 소화천사의 집 성당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퓨전댄스연구원(대표자 최창호)'의 난타 공연과 '실내악단 해화(대표자 백진선)'의 힐링음악회를 제공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문의 062-670-746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 자무쉬 감독 '패터슨' 21일 개봉

어제 '...미스터 모' 개봉

내일 허문영 토크 콘서트도

광주극장의 12월 개봉영화를 소개한다. 먼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은 시골 이발사 모씨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크리스마스를 생의 클라이맥스로 만들 계획을 세우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따뜻하고 낭만적인 드라마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14일 개봉했다. 이 영화는 임대형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김 자무쉬 감독의 신작 '패터슨'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의 희비극을 레퍼런스 삼아 슬프지만 유머러스한 화법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101분의 러닝타임 속에 오롯이 담아냈다.

다음으로 '한국보다 낫산', '커피와 담배' 등으로 자신만의 독보적 장르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거장 김 자무쉬 감독의 신작 '패터슨'이 오는 21일 개봉한다. 미국 뉴저지 주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잔잔한 일상을 통해 특별한 울림을 전하는 영화로 김 자무쉬 감독 특유의 워트 있으면서도 시적인 대사, 감각적인 영상미가 특징이다. 또한 광주극장에서는 허문영 영화평

론가의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16일 오후 3시 서부극의 거장이자 고전기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위대한 감독 중의 한 명인 존 포드의 대표작 '리버티 벨런스'를 쓴 사나이(1962)의 필름상영 후 진행된다. 씨네 21 편집장,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 매를 거쳐 영화의 전당 프로그램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허평론가는 '누가 서부 사나이를 죽였나?'를 주제로 서부영화의 상징 존 포드 감독의 영화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IANG HOTEL